

# 성폭력 피해 뒤 숨진 학생 부모 靑청원

### 경찰 “사망 인과관계 밝히기 위해 정확한 조사중”

### 전남교육청 “진상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세워”

“미흡하게 상황을 처리한 학교와 상급기관 담당자님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아들 데려다주세요.” 전남에서 성폭력 피해 호소 후 숨진 중학생의 부모가 학교와 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로 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전남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4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한 뒤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한 1학년 학생 A군(14) 사건과 관련, 21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11만명을 넘어섰다.

A군 부모는 게시글을 통해 “지난 6월19일 첫 신고 시 학교 측은 성폭력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해 관할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며 “상급기관 등의 정확하지 않은 대처로 아들을 성폭력 피해자로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보냈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6월 7~19일 A군의 첫 등교 후부터 2주 동안 전남의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벌어진 성폭력에 관한 사건이다.

A군은 기숙사 취침 시간만 되면 동급생 4명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부모와 학교에 알리지 말라’는

협박도 당했다. 공포에 떨던 A군은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동급생들은 무시하고 성폭행을 이어갔다.

청원자는 성폭력 신고 이후 해당 학교와 교육청이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안학교인 이 학교는 성폭력 신고 접수 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조사하고도 이들의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수차례 항의 끝에 가해학생들에게 학교장 재량의 긴급조치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내려졌다.

그러나 긴급조치만 내렸을 뿐 학교는 가해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도록 했다.

A군은 지난 6월29일 등교 의사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어 온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 가해학생 1명이 여전히 학교에 나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졌다.

다음날인 30일 오전 11시쯤 가슴 통증과 호흡 불안으로 병원을 찾은 A군은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이라는 소견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결

— 청원진행중 —

### 학교내성폭력 및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참여인원 : [ 117,591명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시작 2020-07-16	청원마감 2020-08-15	청원인 kakao-***
-------------	-----------------	-----------------	---------------

**청원내용**

6월 19일 첫 신고 시 학교 측은 성폭력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 지원청에 신고하였고 상급기관 등의 정확 하지 않은 대처로 진행되는 과정 중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로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피해자 학생은 2020-6-7일 처음 기숙사로 첫 등교 후 ~ 2020-6-19일 2주 동안 전남에 있는 대안 중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관련 사건입니다. 기숙사 내 밤 10시부터 12시경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며 6월 10일경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안 취침시간만 되면 가해자 A군과 B군 등 여러 차례 피해자 아들이 자려고 하면 “\*\*\*” 등 이유로 가해자 A 자신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 학생 신체에 비비는 등 가해자 상에서 하얀 오줌이 나와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협박(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지 말라)을 하였습니.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무시하고 행위를 하였고 목욕시간이 되면 피해자 학생에 성기가 적다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습니다.

국 숨졌다.

청원인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무리 괴로워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 는 말이 있듯이 저희 아들은 살고 싶어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난이었다는 가해학생들은 들어라. 장난으로 던진 돌이 우리 아들의 목숨을 뺏아갔다”며 “미흡하게 상황을 처리한 학교와 상급기관 담당자님,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아들 데려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현재 경찰은 학교로부터 학교폭

력 신고를 접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장히 민감한 사건이다”며 “성폭력으로 인해 숨진 것인지 등 사량의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17일 A군의 보호자와 면담을 갖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냄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정 기자

## 아내와 불륜 남성 협박 거액 지급각서 강요 40대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는 남성을 폭행한 뒤 합의금 지급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공범으로 기소된 A씨 친구 B씨(45)에게 벌금 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7일 오후 울산 한 공원에서 A씨 아내와 불륜 관계인 C씨(35)를 만나 “너를 죽일 수 있다. 너의 아내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해 C씨가 25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C씨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요 행태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농수로에 차량 추락...50대 동네친구 3명 숨져

신안 한 농수로로 SUV 차량이 추락해 50대 남녀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9분쯤 신안군 지도읍 한 농수로에 SUV 차량이 추락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운전자 A씨(59), 동승자 B씨(59)와 C씨(58·여) 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차가 발견된 수로는 도로보다 3~4m 낮으며, 차는 보닛 부분이 v자로 움푹 들어간 채로 뒤집혀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동네 친구인 A씨 등은 이날 0시~0시30분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은 편도 1차로 도로의 굽은 구간에서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시멘트로 만들어진 수로 옹벽을 강하게 들이받으면서 탑승자들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 착용 여부, 차량 속도, 운전자 A씨의 음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 제주 해상서 백골화 남성 사체 발견

제주 해상에서 백골화가 진행 중인 남성 사체가 발견됐다.

2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5분쯤 서화포구에 서 북동쪽 4.9km 해상에서 경비 업무 중이던 해경 함정이 백골 변사체를 발견해 인양했다.

발견된 변사체는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 중이었으며, 신장이 약 175cm인 남성으로 추정됐다.

검은색 반팔 상의, 카키색 하의, 반스 스니커즈를 착용한 상태로 그밖에 신원을 특정할 소지품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해경은 실종 신고자 대조와 지문감식 등으로 신원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 어머니 흥기살해 40대 심신상실 주장

흥기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다시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장경)는 2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약 1개월의 치료감호 및 정신감정을 신청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 세종시에 있는 68세 어머니 B씨의 집을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흥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는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고, 심실상실 상태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살해하려는 줄 착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기소된 당시에도 한차례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신청한 끝에 범행 당시 심실상실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받아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의뢰하고, 오는 2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치료감호를 신청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 박원순 고소인측 2차 기자회견...‘성추행 방조’ 더 나올까

시간·장소 미정 인권위 비롯 국가기관 통한 진상규명 등 설명할 듯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고소인에게 보낸 비밀대화방 초대 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

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다음날인 22일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고소인 측을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의 지난 13일 기자회견과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그간의 성추행 및 묵인·방조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타 기관을 통한 박 시장 성추행 진상규명, 서울시청 압수 수색, 서울시 진상조사단에 대한 입장,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김

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에 따르면,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22일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는 미정이며 확정되는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온·세상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2차 기자회견에서는 “궁금해하시는 것들, 오해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 다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인권

위원회 등 경찰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을 통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조사 및 판단을 요청하고 가능성이 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접 진정 여부를 비롯해 다른 내용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제3자인 시민단체 ‘사법시협준비생모임’이 인권위에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요청했던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해당 진정에 따른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며 필요한 경우 직접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2차 피해나(성추행) 방조, 공무원 기밀누설 이런 부분들은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나, 그 행위자들은 사망한 것은 아니니 수사기관에서 적극 수사해 필요하다면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